

與 “한국당 또 조국 출석 요구... 양심 있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靑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 출석 인사 잡음 사과 한국당 불출석 비난에 민주당 “보수 집권 9년간 全無”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장관 후보 나마와 관련해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인사추천 위원장으로서 송수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임명된 노 비서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해 인사발령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에 보다 엄격히 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와 국회 목소리를 더욱 무게 있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주(미국시

간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내겠다”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 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진행된 전체회에서는 여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나마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진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집권한 시절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가 없었다고 맞섰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의

중심은 나마한 장관의 부실 인사검증인 만큼 조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가 ‘국정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적 특성’ 때문이라는데 차라리 ‘인사 검증에 실패해 면목 없어 못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보냈다면 이해할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출연을 흔하게 하더니 가장 애기해야 할 때인 지금은 잠수타고 있다”며 조 수석의 출석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회에 출석한 민정수석은 문재인, 전 해철, 조국 수석이었다”며 “한국당은 집권 9년 동안 한명도 출석을 안 했는데 출석을 해 놓고 요구하면 이해가 갈 텐데 기본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당 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도 안 나왔다”며 “그런 전례에도 지난해 12월 31일 법안 처리를 전제 조건으로 조 수석이 나왔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모든 의원께서 다 이해하시라라고 생각한다”며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자료 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노 실장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법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다만 의 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나 보안, 개인정보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송갑석 “군 공항 이전시 국가 지원 명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 갑)은 4일 군 공항 이전시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의 목적에 지원뿐 아니라 개발을 위한 사업도 포함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용도 폐지된 군 공항의 가액을 배 나며 남은 금액은 전액 지원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명시, 이전 부지의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별도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기부 대 양어’ 방식 이외의 재원조달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자 지역공약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원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만큼 이전부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FC 축구 경기장 안 유세 논란을 계기로 경기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4일 입정권을 구매해서 들어가는 경기장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호별방문 금지 대상에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놀이시설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안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장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간에 벌어진 경기장 내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 선관위위원회는 위법 결론을 내렸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조치를 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입정권을 구매해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이나 놀이시설 등을 ‘호’의 범위에 포함해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내달 원내대표 경선 3파전

김태년·노웅래·이인영 경쟁 본격화

4·3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예비 주자들의 경쟁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초에 끝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적 무게감이 한층 크다.

일단 예비 주자로는 나란히 3선의 의원인 김태년·노웅래·이인영 의원(가나나 순)의 3파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선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김태년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실세이자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특히, 김 의원은 순천 출신으로 지난해 광주·전남 국비 예산 확보에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며 현안에 밝고 추진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노웅래 의원은 원내대표 3수생인데다 비주류라는 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친화력과 중립 이미지와 함께 특별한 계파색이나 세력이 없어 확장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당내 지지 기반과 정치적 ‘임팩트’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은 지난 2월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과 더불어는 미래 회의에서 연달아 경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다소 늦게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이 의원은 당내 주류인 이해찬 대표 진영과 ‘다른 색깔’인 만큼 총선 공천에서 균형 추를 잡는 역할을 하고, 당·청 관계에서도 당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표창원 “檢 김성태 수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익 목적”

여야 법사위 설전 ... 법무장관 “문제 있으면 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채 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남부지검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검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

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두 개의 사건 중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되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로 대부분 인정됐다”고 거론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다음에 어떤 수사를 할 거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수사기밀 누설로, 동부지검

이 완전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 등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사표를 냈다고 보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68247581

251649783

130758492

246371280

462810973

576214302

691749802

87414002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추천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2019. 4. 16(화) 18:00시 限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추천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